

논 단 / 자 료

국가연구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학술지지원센터’의 역할증대 및 발전방향

황 말 례
중앙도서관 수서정리과

< 목 차 >

- | | |
|------------------|-------------------------|
| 1. 서 론 | |
| 2. 해외운영사례 | 4.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 2.1. 독일 사례 | 4.2. 서비스 체계 구축개요 |
| 2.2. 일본 사례 | 4.3. 외국학술지지원센터 구축·운영 현황 |
| 2.3. 프랑스 사례 | 5. 결 론 |
| 3. 국내 설립배경 및 경과 | |
| 4. 서울대학교 운영사례 | |
| - 자연과학 분야를 중심으로- | |

초 록

외국학술지지원센터는 프랑스,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써 연구자들에게 해외학술정보를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구매하여 공동 활용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그 필요성을 인지하여 2006년 경북대학교에 전자·통신 분야 외국학술지 지원센터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였으며, 2009년 12월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7개 대학에 7개 지원분야에 외국학술지 지원센터를 확대하여 지정하였다. 센터로 지정받은 각 대학도서관들은 국가지원예산과 학교자체 대응투자 예산으로 해당 주제별 학술지를 폭넓게 수집하여 이용자들에게 복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 학술정보 서비스를 산·학·연구기관뿐만 아니라 관련 주제를 연구하는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홍보하고 서비스 함으로써 외국학술지 지원센터가 연구자들의 학문연구에 중심이 되어 국가 연구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

1. 서 론

학술정보의 확보와 원활한 유통은 연구 환경의 기반이 되어 궁극적으로는 국가 연구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다. 특히 전문학술지는 학술연구의 기록물로, 연구자의 업적평가의 수단이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자매체 및 통신의 발달로 전자저널과 전자DB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외국학술지 출판사들은 대부분의 판권을 확보하고 인쇄형태보다 전자형태의 학술지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등 온라인 구독을 유도하고 있다. 대다수 대학도서관들 또한 보존 공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인쇄학술지 구독보다는 전자학술지 구독을 선호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전자형태의 학술지는 접근·이용은 편리하지만, 저작권의 문제로 원문복사 서비스가 어렵고, 구독중단 시 콘텐츠의 보존 및 활용이 어렵다. 특히 패키지 형태의 공급으로 인한 도서관의 구매력 제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원문복사 서비스가 가능한 인쇄학술지를 확보하고 공동 활용할 수 있는 학술정보정책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2005년 외국학술지지원센터 기본계획을 수립한 교육인적자원부가 국내외 학술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을 위해 시범적으로 대학도서관에 학술정보 지원센터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2006년 8월 21일 경북대학교가 전자·정보통신 분야 외국학술지지원센터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어 현재까지 관련주제 학술지를 구입하여 전국의 모든 연구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원문복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9년 10월 외국학술지지원센터 확대 사업계획을 수립한 교육과학기술부¹⁾가 7개의 대학도서관에 외국학술지지원센터를 선정하고 지정함으로써 각 센터 대학들은 해당주제별 학술지를 수집하여 대학 내의 교수, 학생들 뿐만 아니라 전국의 관련 연구자 모두에게 무료원문복사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 지원으로 설립된 각 대학의 외국학술지지원센터들의 획기적인 서비스 개선과 역량 강화, 정부의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그 본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바, 본 논문에서는 선행되었던 주요 선진국의 학술지 수집 정책과 관련된 사례들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학술지지원센터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 해외운영사례

2.1. 독일 사례²⁾

독일연구재단(DFG:Deutsche Forschungsgemeinschaft, German Research Foundation)은 연방 및 주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비영리 중앙 학술 단체이다. 이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1) 정부조직 개편으로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과학기술부로 명칭 변경됨.

2) 심원식, 박홍식, “해외인쇄학술지의 확보와 유통에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15권, 제2호(2004), pp. 141-159.

역할 중 학술정보와 관련된 것으로 학술 문서관리 지원제도(Scientific Library Services and Information Systems)를 시행하고 있는데 연구지원에 필수적인 체계적 학술정보의 지원을 위해 국가 차원의 정보 인프라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초지역적 또는 구조적인 의미를 지닌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학술문서관리 지원 사업 중 예산이 가장 많이 투자되는 전국적인 도서관 서비스 운영위원회(Überregionale Literaturversorgung)는 전체 예산의 40% 정도를 분담수서를 통하여 학술정보 확충에 지원하고 있으며, 60여개의 도서관이 120개 분야의 자료를 확보하여 전국 상호대차제도를 통하여 자료를 공유하고 있다.

또한 DFG는 독일 연방정부와 16개 주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독일 내 모든 분야의 연구를 지원하고 있고, 전문 분야별 자료를 수집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SSG(Subject Special Collection, Sondersammelgebiete)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23개의 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해당 분야의 주요 정보를 망라하는 학술정보 거점으로 육성되고 있다. 지원 센터는 외국학술지와 함께 주요 단행본, 참고도서 등을 구입하여 종합적인 외국학술정보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 주요 국내외 웹 자원을 정리하여 구입한 자료와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당분야의 진정한 포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산지원에 있어 국내 학술정보의 구입경비는 개별 대학에서 모두 부담하되, 외국 학술정보 구입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2.1.1. SSG 지원 및 운영방법

전국적인 도서관 서비스 운영위원회(Überregionale Literaturversorgung)에서 지원 센터로 선정되면, SSG에 선정된 기관들은 자체 예산으로 학술자료를 구입하고 그 비용의 75%를 정부가 지원한다. SSG가 매년 보고서를 제출하고 차년도 예산을 신청하면 위원회가 이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가. 본(Bonn) 대학 사례

Bonn대학 중앙도서관은 Roman분야의 학술정보 지원센터로 지정 되었으며 약 220만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고, 약 100여개의 분관들이 각 학과 및 연구소 등에 설치되어있다.

SSG 담당자는 관련 주제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사서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본 대학에서 Roman분야 전문사서로 일하고 있는 Dr. Wolfgang Hillen은 Roman분야 박사학위를 가진 전문사서이다.

SSG 운영현황을 보면 대학과 DFG가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하여 SSG를 운영하고 있는데, 외국 자료 구입비용의 75%(2006년 기준)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으며 SSG의 목표는 해당 분야 자료를 망라 수집하는 것이다. 아마도 모든 SSG를 합하면 최고의 국립 전공 도서관이 될 것이다. 각 분야별로 자료가 겹칠 수가 있기 때문에 DFG가 우선 조정하고, SSG사이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 기관끼리 협의 조정을 하나, 어쩔 수 없이 겹치는 수도 있다.

SSG의 자료구입 지침은 우선 학문적 가치가 높은 자료를 1차적으로 구입하고, 상징성과 의미 있는 작품을 2차적으로, 그리고 작품에 대한 비평서를 3차적으로 구입하고 있다.

2.2. 일본 사례³⁾

일본의 문부과학성은 외국학술지의 가격상승과 전자저널의 대두 등 도서관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처하고, 외국학술지 수집을 분야별로 분담하여 망라 수집하고, 전국 공사립 대학의 연구자에게 문헌 복사 등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소화 52년(1977년)부터 9개 대학의 국립 대학을 외국학술지 지원 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기 시작했다. 센터의 지정은 학문분야별로 구분되었는데 의학·생물 분야, 이공 분야, 농학 분야, 인문·사회 과학 분야의 4개 대 영역으로 구분하였고, 분야별로 2, 3개의 센터를 선정하여 주 센터와 서브 센터로 분리 운영하고 있다. 학문분야별 센터의 현황을 살펴보면 의학/생물 분야에 오사카 대학, 도호쿠 대학, 큐슈 대학이 지정 운영되고 있고, 이공 분야에는 도쿄공업대학과 교토 대학이, 농학 분야에는 동경대학과 가고시마 대학이 그리고 인문사회 분야는 히토츠바시 대학과 고베대학이 센터로 지정되어 매년 20억 엔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또한 일본 학술지 지원센터에서의 학술지 수집범위에는 보고서 등 회의 자료도 포함시키고 있고, 일반적으로 학술지가 2/3, 보고서 등 회의 자료가 1/3 비율로 확보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외국잡지센터는 자국 내 회귀 학술정보 유통망인 NII(National Institute of Information)를 통해 목록정보가 공유되고 상호대차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외국학술지원센터 운영과 평가는 9개 도서관의 협의체인 NCOP(The National Center for Overseas Periodicals)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문부과학성의 대학도서관 담당부서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다.

2.2.1. 도쿄공업대학 도서관 사례

이공 분야의 주 센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도쿄공업대학 도서관은 연간 운영비 2억 엔과 2명의 직원에 대한 비용을 별도 지원받고 있다. 2005년 구독학술지가 1,612종이고, 신규 구독 잡지의 수가 112종으로 외부에 제공된 원문 복사가 약 27,000건으로 상호대차를 위한 전담 인력은 정규 직원 2명과 보조 인력 3인으로 구성되었다.

도쿄공업대학 도서관의 외국 학술지 센터는 학술지 이외에도 기술 보고서, 회의자료 등을 집중적으로 구매하며 센터자료만 따로 배열하지 않고, 관련 주제 소장 자료와 함께 혼합 배열하여 이용하고 있다.

또한 이공 분야 서브 센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교토대학 부속도서관의 경우 서로 구독목록을 교환하여 중복 구독을 방지하고 있으나, 두 개 센터간에 분야별로 구체적인 역할 분담은 없다.

3) 차미경, “도서관활성화 2단계 대책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6.

2.3. 프랑스 사례4)

프랑스의 대학도서관은 1970년대 장서 규모, 예산, 시설, 이용 등에서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
고,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개선책 마련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이 1980년대 전후한 시점으
로, 1982년 발표된 Vandevoorde에서 국가 및 대학당국 차원에서 대학도서관의 전문화·특성
화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안되었고 이를 계기로 프랑스의 대학도서관 지원·육
성 방안이 정부 주도에 의해 추진되었다.

1980년대 초반 교육연구부 장관은 원칙적으로 대학도서관을 기반으로 하여, 연구를 위한 학
술자료의 수집, 배포 및 공동 이용을 목적으로 CADIST (Centres d'Acquisition et de
Diffusion de l'Information Scientifique et Technique)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정책의 도입으로
프랑스에서 국가 차원의 전문연구도서관 간 학술정보의 수집 및 공동 이용을 실시하는 계기가
되었고, 국가 차원에서 중요한 학문 분야를 제시함과 동시에 대학의 역사와 전통의 특성을 고
려하여 일부 대학에 주요 학문 분야에 관한 학술자료의 망라적 수집 및 정보 제공 서비스에
대한 임무와 역할을 부여하였다. 그 결과 현재, CADIST는 연구정보 서비스 차원에서 특정 주
제 분야에서 전문화된 도서관으로 명실상부한 대규모 학술정보 공동 이용 체제를 형성하고 있
다.

CADIST는 학술자료의 확충과 관련하여 대학도서관간 협의에 의해 결정된 장서개발 정책을
고려함과 동시에 대학 및 연구소의 연구 계획과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외국 자료를 위주
로 단행본, 정기간행물, CD-ROM, 비디오, 전자자료 등 연구에 필요한 모든 유형의 자료들을
구입한다. 필요한 자료의 상호대차 신청은 반드시 이용자가 소속되어 있는 도서관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자료 대출, 복사 등의 요구는 24시간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한다.

<표1> CADIST의 임무, 성격, 역할 및 운영 방안

구분	내 용
임무	대학도서관 학술자료의 대대적 확충 이용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자료의 확보 관련영역의 연구자들에 의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과거자료의 확충(1992년 보완)
성격	국가적 성격을 갖는 학술정보제공 기관
역할	지정된 학문분야와 관련된 자원의 완벽한 수집 수집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대출 및 재생산 시스템 운영 학술연구의 과정에 적극적 개입(1992년 보완)
운영	도서관 지원금 외에 CADIST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금 지급 성과에 따른 지원금의 규모 상이하게 지급(1992년 보완)

4) 김선애, “대학도서관의 특성화를 통한 학술정보 공동이용방안: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

2.3.1. CADIST 운영사례

학술정보센터인 CADIST는 현재 24여 개의 주제 분야를 37개 대학도서관과 전문도서관에서 시행하고 있다. CADIST 정책 시행에 있어 교육연구부는 대학의 역사, 전통, 학문적 특성, 지역 특성, 수도권 및 지역적 균형을 고려하였으며 수도권과 지방의 비중이 거의 5:5 수준으로 선정하였다.

순수·응용과학 분야의 CADIST 주제는 지질학/해양학, 수학, 의학/치의학, 물리학, 천문/천체물리학, 식물학/동물학/동식물/생물학, 화학/생물/약학 등의 7개 주제 10개 기관이 선정되었다.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주제 분야는 고대문명, 예술/고고학, 지리학/도시학, 경영/경제학, 역사:중세사, 역사:현대사, 언어/문학/문명(영국), 언어/문학/문명(게르만), 언어/문학/문명(미국), 이베리아, 언어/문학/문명(이탈리아), 선사학, 국제관계/세계정세, 교육학, 법학, 정치학, 종교학 등 17주제 27개 기관이 센터로 지정되었다. 대부분의 경우 한 개의 주제를 한 개 기관 혹은 몇 개 기관이 분담하여 지정 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소르본 대학도서관의 경우처럼 두 개의 주제 (지리학/도시학, 역사:중세사)에 대해 그 책임을 맡고 있는 경우도 있다.

CADIST 정책의 도입 효과는 도서관 간 자료의 상호대차 부분에서도 또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CADIST로 지정된 대학도서관 간에 행해지고 있는 상호대차 활동이 50% 이상을 소화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과학, 기술 및 의학 분야 도서관의 경우는 전체 상호대차 이용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CADIST가 학술자료의 수집 및 공동 이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었는데, CADIST 정책 도입 후 자료 수집을 위한 특별 지원금이 10배를 증가하는 괄목한 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또한 특정 대학도서관의 특정 주제에 의한 전문화, 세분화는 대학 내에서 관련 주제 분야 연구의 활성화를 가져오고, 대학의 특성화를 가능케 하였으며 대학을 중심으로 한 산·학·연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학이 지역 산업에 필요한 연구 개발과 인재 양성에 주축을 담당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3. 국내 설립배경 및 경과

3.1. 추진배경

- 학술정보의 양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학술정보의 확보 및 활용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지만 우리나라 지식정보 인프라는 미국의 1/17, 일본의 1/7, 독일의 1/4정도에 불과하여 국가 연구경쟁력 제고를 위한 학술 정보의 확보 및 활용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 또한 각종 DB의 전자학술지가 다양화, 세분화되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저작권 문제로 유통에 한계가 있어 전국 학술연구기관 간 공동 활용이 불가하게 되어,
- 학술정보의 공동 활용과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외국학술지 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하게 되

었다.

3.2. 추진경과

2005년 교육인적자원부가 외국학술지지원센터 기본계획을 수립 후, 1개의 대학도서관을 외국학술지지원센터로 지정하여 학술지원 시범서비스를 시행한 이래 수 차례의 확충 및 계획(안)이 수립되었고, 2010년에는 10개 분야 지원센터(안)을 수립되었으나,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7개 분야 지원 센터가 선정되어서 외국학술지 지원센터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표 2> 10개 지원 센터 계획(안)

예술/인문/어문	사회과학/법학	경제/경영	자연과학	기술과학
전기/전자/통신공학	농축산/해양	기초과학	임상의학	생명공학

- 2006년 8월 경북대학교가 전기·전자·통신 분야 외국학술지지원센터로 지정되어 시범서비스를 시작하였다.

- 2008년 11월 대학도서관 발전계획(2009~2013년)을 수립하여 15개 지원 센터로 확충(안)이 제시되었다.

<표 3> 15개 학술지지원센터 확충(안)

인문과학	① 철학/종교/동양사/서양사				
예체능	② 음악/미술/연극. 영화/체육. 무용				
어 문 학	③ 동양어. 문학/ 서양어. 문학				
의 학	④ 의학/치의학/한의학			⑥ 약학. 생물. 화학	
순수과학	⑤ 수학. 수리학/물리학/지구과학. 천문학				
기술과학	⑦ 전기. 전자. 통신	⑧ 컴퓨터 공학	⑨ 건축. 토목/기계 / 조선. 우주공학	⑩ 환경/에너지. 원자력/자원공학	⑪ 화학공학 /재료공학
사회과학	⑫ 정치. 외교/법률. 행정학		⑬ 경제. 경영학		⑭ 신문. 방송학/교육. 사회
농. 축산	⑮ 농학/축산학/수산. 해양학				

- 2009년 5월 대학도서관 외국학술지 구독 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4년제 대학의 평균 외국학술지 구독 금액이 3억원으로 자료구입비 11.8억원의 25.1%를 차지하고 있어 학술지 공동 활

용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2009년 10월 외국학술지지원센터 확대 사업계획 수립하고 지원센터 사업을 계획하였다.
- 2009년 12월 2일 7개의 외국학술지지원센터를 선정하였다.

<표 4> 외국학술지지원센터 지정 및 예산 지원 현황

대 학 명	분 야	지원금액	주요학문분야
강원대학교	생명과학	3.5억원	약학, 생물학
경북대학교	정보통신	2.4억원	전자, 정보통신, 컴퓨터
고려대학교	인문사회	2억원	철학, 종교, 동/서양사, 동/서양어문학
부산대학교	기술과학	3.5억원	건축, 토목공학, 기계·재료공학, 조선/우주항공공학
서울대학교	자연과학	3.5억원	수학, 물리·천문, 화학, 지구과학
연세대학교	임상의학	3.1억원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전북대학교	농수축산	2.4억원	농·축산학, 수산·해양학
계		20.4억원	

※ 센터 통합검색 시스템 개발 운영비: 1.1 억원 (사업기관: KERIS)

3.3. 추진내용

<표 5> 외국학술지지원센터 사업을 위한 기관별 역할 분담업무

교육과학 기술부	-기본계획 수립, 행정·재정 지원 -사업비 확보, 평가, 지도평가 -교육과학기술부, 사업기관, 대학간 협력체제 운영
사업기관 (KERIS)	-외국학술지 통합검색 시스템 개발·운영 -외국학술지지원센터 업무관리 -사업 분석 및 외국학술지지원센터 평가
외국학술지 지원센터	-대응투자비, 시설, 인적자원 확보 -해당분야 학술지 선정, 구독 및 원문서비스 실비 제공 -7개 협의체를 통한 분담수서 추진 -관련 교수, 연구자 등에 대한 학술지 정보 제공
대학도서관	-외국학술지지원센터 학술지 선정 시 참여 -교수, 연구원 등 학내 이용자에게 홍보 및 이용안내 -대학보유 학술지도 무료원문서비스 제공

- 학술지 총 구독금액의 50%를 국가가 지원하고, 참여대학은 정부가 지원한 예산금액을 상회하는 대응투자비를 부담한다.

- 구독하는 외국학술지는 열람 및 원문복사서비스 등을 통하여 모든 대학도서관이 공동이용한다
- 각 센터는 각 대학이 보유한 자료 중 해당주제 분야 자료를 센터자료에 포함하여 대학 외 연구소 등의 기관 및 일반인에게도 확대 서비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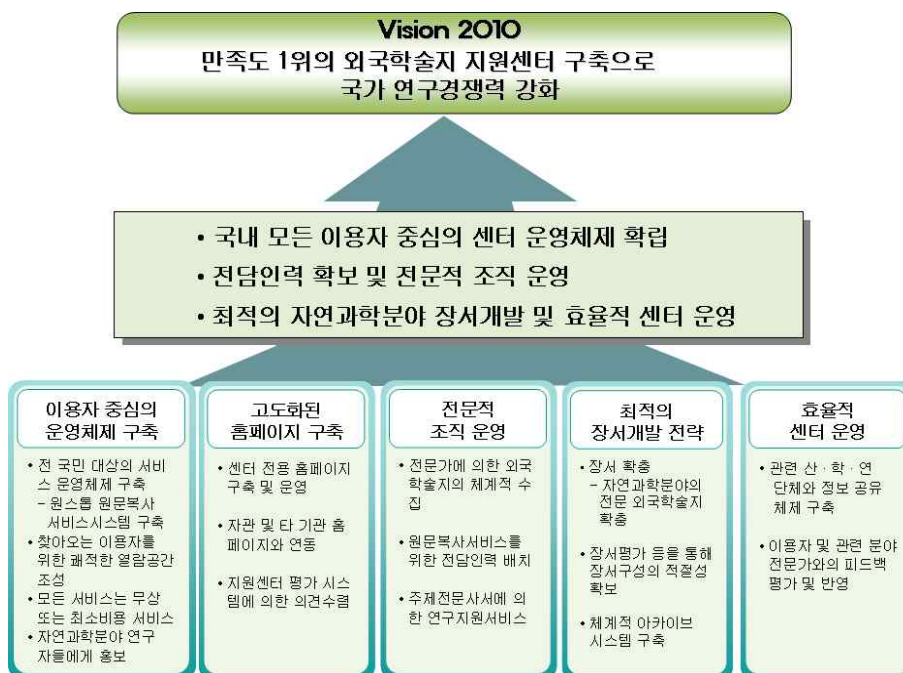
4. 서울대학교 운영사례 : 자연과학 분야를 중심으로-

4.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목 적 : 수학, 물리학, 화학, 지구과학, 천문학 등 자연과학분야의 외국학술지를 폭넓게 수집·비치하여, 모든 자연과학분야의 학술연구자들에게 무료로 원문복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 비 전 :

<표 5> 서울대학교 외국학술지지원센터 비전



서울대 도서관의 학술지 구독종수는 Harvard 대학의 32%, 동경대학의 23%에 불과하다. 특히 자연과학 분야 연구자들에게 필수적인 JCR 수록 학술지는 57% 정도밖에 구독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의 기술과학, 응용과학의 발전을 위하여 수학, 물리학/천문, 화학, 지구과학과 같은 기초과학의 토대를 이루고, 국내 열악한 과학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자연과학 분야의 학술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여 관련주제 연구자들에게 원문복사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가 연구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4.2. 서비스 체계 구축 개요

4.2.1. 외국학술지 지원센터 구성도

<그림 1> 외국학술지 지원센터 구성도



- 자연과학분야 외국학술지 지원센터에서는 수학, 물리학, 화학, 지구과학, 천문학에 관련된 외국학술지를 선정, 구독하여, 기관 자체 구독 학술지와 혼합 배열하여 이용 편의성을 높이며, 소장된 모든 관련주제 학술지는 국내외 모든 도서관 및 연구소 연구자들과 공동 활용한다.

- 도서관을 방문하는 학내외 및 일반 이용자에게 열람 및 무료 복사 서비스를 제공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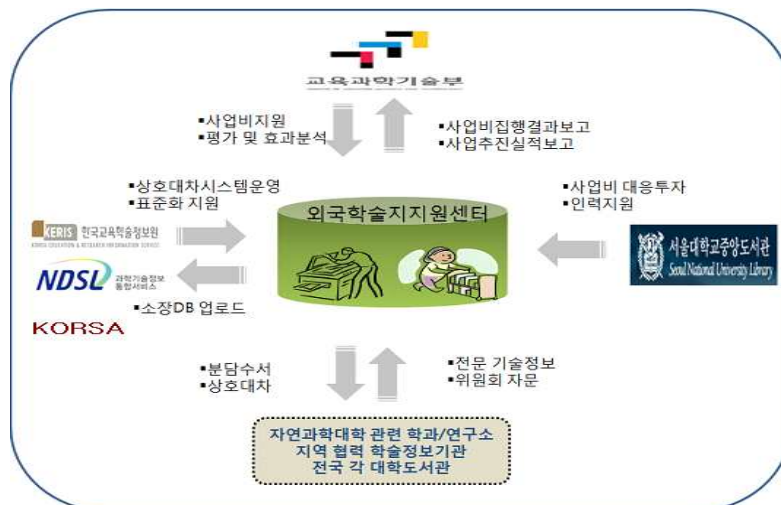
- 타 대학도서관, 연구소, 개인 연구자들이 전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원문복사를 신청할 경우, 저작권법 허용 범위 내에서 팩스, 우편, 전송에 의한 방법으로 배달 및 복사 무료서비스를 제공한다.

- 지원센터에 소장하고 있지 않은 학술정보를 요청할 경우에는 국내외 학술정보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입수하여 이용자에게 실비로 제공한다.

- 자연과학 분야 관련 학과 및 연구소, 분관 자료를 요청할 경우 무료로 복사서비스를 제공해준다.

4.2.2.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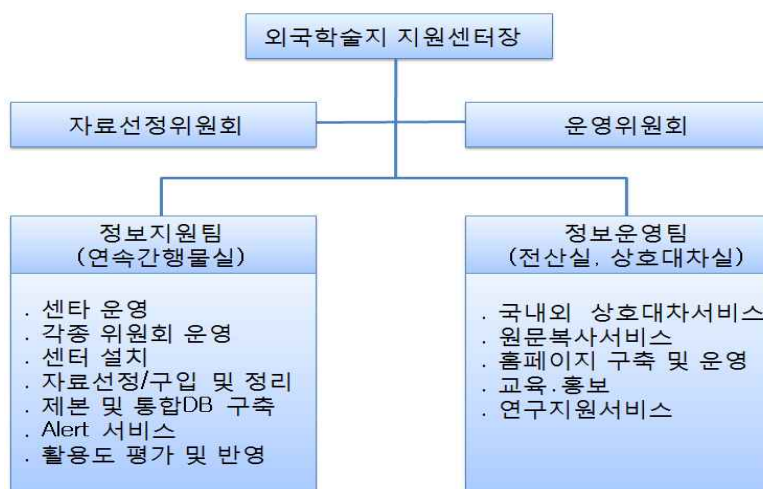
<그림 2>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성도



4.3. 외국학술지지원센터 구축·운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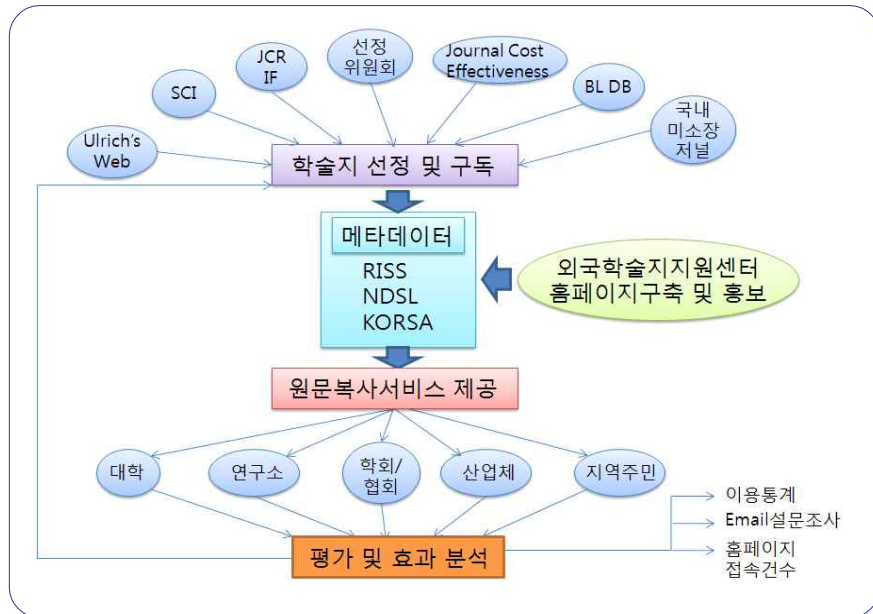
4.3.1. 지원센터 운영조직

<표 6> 외국학술지 지원센터 운영조직



4.3.2. 지원센터 서비스 구성도 및 내용

<그림 2> 지원센터 자료구입 및 정보서비스 구성도



① 자료 선정기준

- 주제분야: 수학, 물리/천문, 화학, 지구과학 분야 핵심저널을 선정한다.
- JCR의 IF(Impact Factor), EF(Eigen Factor)등을 참조하여 선정한다
- SCI(E) Core Journal을 선정한다
- Journal Cost Effectiveness 참조하여 구독대비 효용성을 검토한다.
- 관련분야 교수 및 연구자들에게 추천목록을 의뢰하여 참조한다.
- 내용, 출판사항등의 명확성, 가격의 적정성, 주제 분야 특성 등 센터 분야에 적합성 여부를 검토한다.

- 구독자료 중 원문복사신청이 비율이 높은 비 소장 자료의 back issues 들을 구매한다.

② 선정된 학술지의 국내 미 보유 현황 조사

- RISS 종합목록, Wisecat, KORSAs의 목록정보를 통하여 외국학술지의 국내소장여부를 조사하고, 소장도서관을 확인한다.

- 전국 대학에 관련분야 학술지 구입 신청을 받아 선정목록에 추가한다.

③ 구독확정 및 주문

- 구독우선순위 목록을 작성하여,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선정목록을 확정한다.

④ 학술지 입수 및 체크인 작업

- 학술지 입수사항을 시스템에 입력하여 이용자에게 최신 입수정보를 제공해주고 결호 사항을 수시로 체크하여 대행업체에게 독촉한다.

⑤ 학술지 제본 및 통합 DB구축

- 당해연도 간행물은 입수 후 6월 이후 제본하고, KERIS, KISTI 공동목록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일반 장서와 함께 관리한다.

⑥ 외국학술지 공동보존 계획

- 60만권 이상을 보존할 수 있는 보존서고 설치로 관련저널 망라 수집하여 보존이 가능하며, 대학 협력 대학과의 학술정보자원 공동 보존을 통한 공동 활용이 가능하다.

⑦ 이용자 서비스

- 지원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이용자들에게 지원센터의 역할과 무료 원문서비스에 관한 홍보를 한다.

- 센터공간을 설치하되 센터예산으로 구입한 자료는 도서관 소장 자료와 함께 혼합 배열하여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센터서가에 센터서비스 자료라는 표식과 함께 가이드를 부착하여 무료복사서비스 가능함을 다시 한 번 알려 준다.

- 자연대학 관련학과 및 연구소 도서관과 연계하여 학과도서관에서 자체 구독하고 있는 자료를 학내외 모든 이용자들에게 무료 복사서비스를 제공한다.

- 관련 학술지의 alert service로 학계 및 관련주제에 대한 최신정보를 제공한다.

- 주제관련 학회 소식, 최신뉴스 등 주제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 RISS, NDSL, MEDLIS 등의 상호대차 시스템을 통하여 기관 및 개인 연구자들의 이용 신청을 받아 온라인, E-mail, FAX 등을 통하여 원문 복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 이용서비스의 고도화 및 지원센터 상호간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하여 7개 센터의 개별 시스템, KERIS의 RISS, KISTI의 NDSL, KMLA의 MEDLIS 시스템과 연동되는 외국학술지 통합시스템을 개발·운영한다.

- 센터 구입 학술지는 해당 온라인 저널과 연결하여 발간정보와 목차 정보 등을 제공한다.(해당 학술지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⑧ 활용도 평가 및 반영

- 1년 단위로 이용자의 학술지 선호도 및 활용도를 분석·평가하여 학술지 소장의 지속성을 위해 5년 정도 평가 후, 최신 국내외 연구동향 등을 파악하여 학술지 구독여부 검토시 참고한다.

4.3.3. 지원센터 서비스 활성화 방안 및 추진계획

① 구입 학술지의 활용도 평가 방법

- 상호대차를 통한 이용자의 원문복사 신청 건수로 학술지 선호도를 산출한다.

- 검색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학술지로의 접근횟수를 산출하여 이용자의 학술지 선호도를

산출한다.

- e-mail 설문조사를 통하여 이용자의 학술지 선호도를 측정한다.
-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복사서비스를 신청한 자료의 건수를 측정하여 이용자의 학술지 선호도 측정 시 합산한다.

② 합리적인 고객만족도 평가 방안

- RISS, NDSL, MEDLIS 등 전체 상호대차 신청건수 및 제공 건수로 이용자의 원문복사 서비스의 만족도를 측정하여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 상호대차 이용자에 대한 정기적인 고객 만족도에 대한 피드백을 평가 분석하여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한다.

- 학술지의 최신성(최신 정보 업데이트 정도), 유용성(가치 있고 유용한 정도), 전문성(전문적인 정보제공 정도)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고객만족도 향상 지표로 사용한다.

③ 지역사회 및 지역주민과 연계한 서비스

- 도서관 회원제 운영으로 자료 대출, 소장학술지 원문서비스, 도서관 출입 등 시설을 개방하고 학술자료들을 공동 활용하고 있다.

- 2010년 8월말 현재 912명이 회원제에 가입되어 있으며, 2007년 2월 지역 주민에의 개방 이후 점차적으로 회원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 지역도서관과 연계 홍보 및 지역주민에게 서비스 개방으로, 찾아 가는 도서관 서비스 이미지를 홍보한다.

④ 센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방안 및 운영 현황

- 센터 전용 홈페이지 구축 및 초기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이벤트를 개최한다.
- 지원 분야 유관 기관(대학, 연구소, 학·협회, 산업체 등) 웹사이트 배너를 공유한다.
- 각 대학도서관 및 관련 협의회 웹 사이트 배너를 공유한다.
- 구글, 네이버 등의 검색엔진 및 디렉토리에 등록한다.
- 주요 언론매체를 통하여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⑤ 외국학술지 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으로 학술지 이용 활성화

- KERIS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1.1억원) 외국학술지지원센터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할 예정으로 센터별 학술지 목록, 상호대차 신청의뢰, 커뮤니티 운영, 회원제 기능, 통계기능 등의 센터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를 구축한다.

- 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지원센터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구독 학술지 정보 필요로 하는 대학, 연구소, 산업체 등의 이용자들에게 시공간을 초월한 신속한 학술지 이용을 가능케 하며, 커뮤니티 운영 등 이용자와 함께 하는 사이버공간(홈페이지) 운영으로 지원센터 활성화를 기한다.

- KERIS의 RISS, KISTI의 NDSL 홈페이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및 분관 홈페이지, 관련 연구소 도서관 등에 센터 배너를 연결하여 센터이용을 활성화 한다.

⑥ 센터 활성화를 위한 대학 지원

- 센터에 지원되는 예산 중 50%는 정부에서, 나머지 50%는 대학에서 대응투자를 해주어, 센터활성화에 기여한다.

- 중앙도서관 및 분관, 학과 및 연구소와의 공동 수서를 통하여 학술지 구독의 중복 투자를 줄이고 학내외 기관이 상호 공유할 수 있는 학술 정보 공동 활용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 학내에서 생산되는 저작물을 디지털화 하여 Open Access로 학내외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고 있다.(총 10,000여 연구저작물 중 자연과학 저작물이 80여종임.)

4.3.4. 지원센터 운영현황

① 학술지 선정 및 구독

- JCR 수록 학술지 중 수학, 물리, 천문, 화학, 지구과학 분야 등 자연 과학 분야 목록을 IF 순으로 추출하였다.

- 자연과학대학에 구독 추천목록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 전국 대학도서관에 자연과학 분야 저널목록 추천 공문을 발송하였다.

- 신청목록 중 소장 중 중복, 신청 중 중복, 컨소시엄관련 여부를 조사하여 선정 예정 목록을 작성하였다.

- 자연과학대학에 학술지 선정위원 추천의뢰 공문을 발송하여 선정 위원을 선정하고,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선정목록을 작성하였다.

- 최종 선정된 목록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계약 하였다.

② 지원센터 공간 조성

- 센터자료와 기존 관련분야 학술지를 혼합배열 함으로써 서가이동이 필요하게 되었고, 서가이동에 따른 가이드 교체작업을 하였다.

- 센터자료 이용을 공간 위치 표식을 위하여 해당 서가위에 천정걸이형 안내표지를 제작하여 설치하였다.

③ KERIS, KISTI, KORSA 등 전국상호대차 기관에 데이터 Upload

- 다른 기관과의 상호대차 서비스를 위하여 상호대차 기관에 회원 가입 후 구입 자료 및 관련 주제자료를 각 기관 상호대차 시스템에 업로드 하였다.

<표 7> 상호대차 기관에로의 데이터 업로드 현황

일 시	내 용	Upload 수	총종수	대상기관
6월 22일	1차 자료 upload	428종	428종	KERIS, NDSL
7월 12일	2차 자료 upload	301종	729종	KERIS, NDSL
7월 29일	3차 자료 upload	1,257종	1,986종	KERIS, NDSL KORSA

<표 8> 7개 센터의 데이터 업로드 현황

(2010.08.23일 현재)

지 원 센 터 명	지 원 분 야	학술지(종수)
강 원 대 학 교	생명공학	327
경 북 대 학 교	전기·전자·정보통신공학	1,025
고 려 대 학 교	인문학	1,428
부 산 대 학 교	기술과학	468
서 울 대 학 교	자연과학	1,986
연 세 대 학 교	임상의학	364
전 북 대 학 교	농축산학	364
합 계		5,962

④ 센터 서비스 이용 안내 홍보 공문 및 홍보 메일 발송

- 전국의 각 대학도서관 상호대차 담당자에게 센터 소개 및 이용안내 정보를 전자 메일로 발송했다.(233개 기관)

- 전국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의 자연과학대학장 앞으로 센터자료 서비스 지원과 관련한 협조공문을 발송하였다.(61개 기관)

- 학내에 있는 자연과학분야 관련학과 및 연구소 소속원들에게 센터 자료 이용서비스를 홍보하는 전자메일을 발송하였다. (9,107명)

- 교내소식 및 연구뉴스를 다루는 “e-뉴스레터”에 센터 관련 기사를 기고하였다.

⑤ 센터 서비스 안내를 위한 각종 홍보자료 제작

<그림3> 지원센터 대표 로고



<그림 4> 도서관 안내 PDP를 통한 지원센터 홍보



<그림 5> 센터 서가의 천정걸이형 안내표지와 서비스 이용안내



<그림 6> 중앙도서관 및 RISS 홈페이지의 지원센터 홍보 배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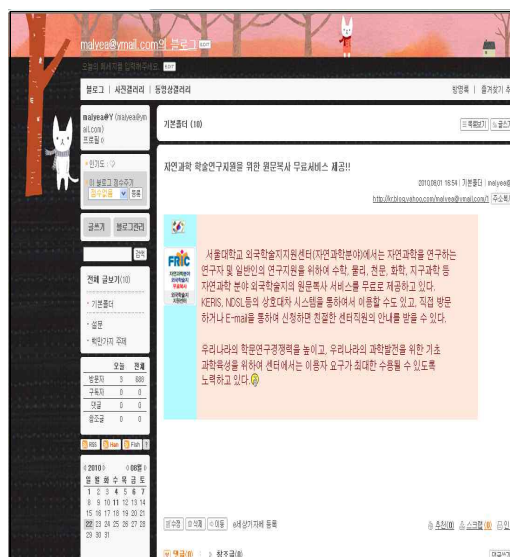
<그림 7> 지원 센터 홍보용 리플렛 제작



<그림 8> 지원센터 홍보를 위한 블로그 포스팅

서울대 도서관 블로그에 포스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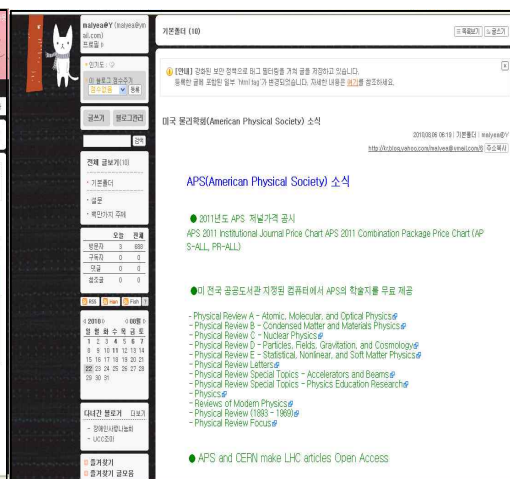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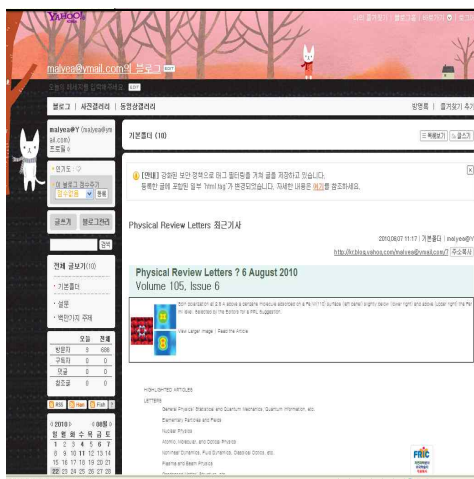
개인 블로그에 포스팅



<그림 9> 목차정보 및 최근 학회소식 포스팅

물리학 저널의 목차정보 포스팅

최근 물리학회 동향 포스팅



5. 결 론

외국학술지 지원센터는 해외에서 발행되는 국내 미 보유 인쇄학술지 가운데 잠재적 이용 가치가 높은 학술지를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확보하여 유통시키고, 대학별 중복 구독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 전문 분야별로 특성화한 학술정보센터를 운영하여 예산 및 보존 공간의 절감효과를 가져오도록 한다.

프랑스, 일본, 독일 같은 주요 선진국에서도 연구자들의 해외학술정보 선호도가 높은 것을 인식하고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학술자료를 구매하고 공동 활용하여 국가연구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는 추세이다.

2005년 우리 정부도 외국학술지지원센터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6년 경북대학교를 전기·전자·통신 분야 외국학술지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시범서비스를 시행하였다. 또한 2009년 12월, 7개의 센터를 지정하면서 학술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을 위한 분야별 지원센터의 기본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각 센터들은 그들이 제안한 지원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관련주제 핵심 학술지를 선정하고 구입하여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원문복사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다. 아직은 이용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지만 지원센터로 지정된 대학도서관은 지원센터로 기능할 수 있는 능력과 역동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욕을 가지고, 연구중심대학으로서 적극적인 공유체제를 구축하여 해당 대학도서관의 역량 강화에도 주력해야 할 것이다.

학술정보 자원의 공동 활용과 학술정보 확충으로 국가연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의 역할이 얼마나 확대되어야 하고, 어떠한 활성화 방안들이 수립되어야 하는지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센터 또는 대학도서관간 분담수서가 필요하다. 이는 개별 도서관의 예산 절감효과를 가져오고, 학술지 종수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둘째, 상호대차 활성화를 유도한다. 분담수서를 위해서는 연구자들의 상호대차서비스의 활발한 활용이 필요하며, 상호대차에 대한 서비스 질과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서 센터 및 상호대차 담당자는 가능한 빨리(1일 이내)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게 하여주고 복사품 질도 높이도록 한다.

셋째, 대학과 정부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 선정된 주제 분야에 관련된 학술정보 자료의 지속적인 수집 및 대학간 공동이용을 통한 학술자료의 효율적 유통은 개별 대학도서관의 의지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 정부와 대학은 외국학술지지원센터의 의미와 효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원과 협조가 함께 있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주제 분야에 대한 학문적 균형이 이루어져야하며 소외를 피해야한다. 센터 주제 선정시 소외되는 학문분야 없이 모든 분야에 대한 학술지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각 센터별 주제영역을 재설정하거나, 정부의 센터확대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다섯째, 외국학술지지원센터는 학술정보의 거점으로 육성되어야 한다. 지원센터가 단순한

외국학술지의 수집과 제공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해당분야의 주요 정보를 망라하여 학술정보의 거점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정부와 대학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여섯째, 외국학술지지원센터간 협력체제 구성이 필요하다. 지원센터 사업은 아직 초기 단계이므로 센터 담당자의 경험 및 노하우를 공유하고, 장기적인 발전 방안을 논의하여 지원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유기적 네트워크 구성이 필요하다.

일곱째,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연속간행물인 학술지의 특성상 단기간의 사업투자는 사업비의 낭비일 뿐 아니라 대학 본부와 이용자 모두에게 불신을 주게 되어 예산낭비만 가져오게 될 수 있다. 외국학술지지원센터 사업은 정부의 장기적인 안목과 지속적인 지원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여덟째, 학술자원의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 외국학술지지원센터가 학술정보의 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인쇄학술지의 확보에 국한된 지원센터의 사업영역에서 보고서, 회의자료, 단행본, 비도서, 전자자료 등 연구에 필요한 모든 유형의 자료를 포괄 수집할 필요가 있다. 수집 범위의 확대는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고, 확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아홉째, 주제 전문서비스를 위한 주제전문사서의 확보가 필요하다. 이용자들의 요구가 점점 세분화되고 전문화되고 있다. 따라서 각 센터 주제관련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역량 있는 주제 전문사서의 육성과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열째, 공공도서관과의 연계를 통한 일반인들의 전문학술정보 이용을 지원한다. 미국 물리학회(APS)는 미국 전역 공공도서관에 물리학회 출판물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즉, 공공도서관에서도 전문학술 정보의 필요성이 인지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원센터도 공공도서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관련 주제를 연구하는 이용자들에게 학술정보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까지 외국학술지지원센터의 선행사례와 설립개요, 현황 등을 살펴보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제 막 출범한 외국학술지지원센터 사업은 센터를 통해 학문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산·학·연구기관과 일반 학술연구자들에게 널리 그 서비스를 알리어 이용률을 높이고, 국가 연구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외국학술지지원센터 본래의설립목적을 달성하여야 한다.

【 참고문헌 】

1. 교육과학기술부. (2010). “2010년도 외국학술지지원센터 사업추진 계획(안)”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2. 교육과학기술부. (2009).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도서관 발전계획 (2009-2013)』 .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3. 심원식, 박홍석. (2006). “인쇄학술지의 확보와 유통의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 37(4): 289-303
4. 김선애. (2004). “대학도서관의 특성화를 통한 학술정보 공동이용 방안: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 15(2): 141-159
5. 차미경. (2006). 『도서관활성화 2단계 대책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 서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6. 신승철. (2006). “학술정보공유 확대를 위한 외국학술지 지원센터 모델” 『한국 교육학술정보원 2006 대학도서관 실무자세미나(상호대차/수서분과)』 .경북대학교 국제회의장. 2006. 12. 1
7. 이재원. (2009).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도서관 발전계획” 『국립대학도서관보』 27: 195-208